

채소값 이어 기름값 마저 '들썩'

국제유가 상승 배럴당 40달러선 '눈앞'

국내 휘발유가 이달 들어 5일 연속 올라

채소값에 이어 기름값마저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때 배럴당 20달러대로 떨어졌던 국제유가가 최근 꾸준히 오르면서 40달러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제유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순차적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의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최근 주유소 기름값이 오름세로 전환한 데 이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오피넷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

발유(이하 1ℓ 기준)는 1344.33원으로 전날에 비해 0.48원 올랐다. 광주의 경우 평균 기름값은 휘발유 1322.40원, 경유 1071.69원이었고, 전남은 휘발유 1322.40원, 경유 1094.8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12일 1501.37원에서 13일 1501.40원으로 0.03원 오른 이후로 5개월가량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다.

하지만 이달 들어 지난 6일 1339.69원을 저점으로 7일 1339.72원으로 상승한 뒤 11일까지

5일 연속 올랐다.

휘발유 1ℓ당 1400원 시대에 이어 1300원 시대까지는 돌입했으나 1200원대 진입에는 실패한 셈이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36.25달러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지난 2월 11일 배럴당 26.08달러로 2003년 4월 이후 1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와 비교하면 40%가량 급등한 셈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 국제 제품 가격도

상승세다.

지난달 11일 싱가포르시장 기준 휘발유 제품은 1ℓ당 289.56원이었지만 지난 10일에는 387.76원까지 상승했다. 경유 역시 같은 기간 1ℓ당 271.89원에서 367.90원으로 급등하면서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원유가와 국제 제품이 흐름에 따라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 역시 지난달 둘째~셋째 주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향후 국내 기름값의 향방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유가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유가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美 FOMC회의 관심 집중

산유국회담 결과 대응 필요

추가 상승시 시장변동성 대비

3월 선물음식 동시만기일인 지난 10일에 외국인은 유가 증권시장에서 올해 들어 일일 가장 많은 650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순매수로 코스피지수는 상승했고 2월부터 강하게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은 3월 만기 코스피200 선물의 수익을 극대화시켰다.

외국인은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8821억을 순매수하며 4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고 기관은 1조 181억을 순매도하며 2주 연속 차익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지난주 중국과 일본증시가 소폭 하락했지만 코스피지수는 0.8% 상승해 1971p를 기록하고 코스닥지수도 +2.37% 상승해 689포인트로 연중 고점에 근접했다.

지난 10일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Draghi 총재는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강력한 통화완화정책을 발표했다. 유로존 시중은행이 ECB에 맡기는 예치금에 적용하는 마이너스 금리를 기존 -0.3%에서 -0.4%로 더 낮췄고 양적완화 규모도 월간 800억유로 수준으로 늘리며 30% 이상 확대했다.

하지만 ECB 발표 후 기자회견장에서 Draghi 총재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10일 유럽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중앙은행의 마이너스금리 발표 후 일본엔화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10일 ECB 발표 후 유로화의 강세를 보인 점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고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 ECB의 정책수단이 소진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는 유럽의 하락에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목요일 미국다우지수 -0.03%와 나스닥지수 -0.26% 하락에 그쳤고 S&P500지수는 +0.02%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도 11일 니케이225지수는 +0.51% 상승하고 상해지수와 국내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이번 주 국내외 글로벌 증시는 지난주 ECB 통화정책회의에 이어 15~16일 열리는 미국 FOMC회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6일 FOMC가 첫 번째 금리인상을 발표한 후 신용국의 환율불안감이 커지며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신흥국 증시의 하락이 최근 진정되고 있는 것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달러 강세심리가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완화되며 오히려 달러 약세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FOMC회의에서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추가 금리인상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준다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능성은 작지만 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하거나 통화긴축 등 시장기대와 반대되는 발표가 나온다면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며 신흥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다시 연초와 같은 급격한 변동성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FOMC와 국제유가의 반격점이 될 수도 있는 20일 주요산유국회담의 결과에 따른 시장대응이 필요해 보이며 코스닥 2000선과 코스닥 700선은 차익실

현매물과 대기물량이 상존하고 있어 추가 상승시 시장변동성에 대비해 일정 부분 현금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화이트데이 사탕목걸이 선물 할래요” 1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특설이벤트장에서 열린 화이트데이기념 이벤트에 참가한 한 어린이가 사탕 목걸이를 만들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지갑 얇아진 남성들 ... 화이트데이 사탕만 샀다

G마켓 판매량 조사, 핸드백 13%·지갑 16%·향수 7% 감소

경기 불황으로 주머니가 가벼워지자 화이트데이(14일)를 챙기는 남성들의 씀씀이도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화이트데이에 초콜릿·사탕보다는 주얼리(장신구류)·가방·지갑 등을 선물로 받기 원하지만, 실제 남성들의 구매는 간식거리에만 몰리고 있다.

13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www.g-market.co.kr)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주요 화이트데이 관련 품목의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여성 핸드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다. 여성 지갑과 향수도 각각 16%, 7% 감소했고, 커플링(14k·18k) 구매량도 작년 동기보다 9% 적었다.

특히 취업난을 겪는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주얼리나 가방 등 잡화 선물 수요가 눈에 띄게 줄었다. 20대 남성만 따져보면 같은 기간 여성 핸드백·지갑·향수·커플링의 감소율(1년 전 대비)이 24%, 23%, 25%, 10%에 이르렀다. 이 기간 남성 구매자가 구매한 여성 핸드백의 평균 가격(객단가)도 작년 동기보다 21%나 낮아졌고, 20대 남성의 객단가 감소율은 무려 31%로 집계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달콤한 디지털 선물 수요는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G마켓에서 남성의 케이크, 초콜릿 구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배, 2배로 늘었다. 젤리와 사탕의 남성 구매량도 각각 47%, 12% 증가했다. 특히 20대 남성의 케이크·초콜릿 구매량은 1년 전의 6배, 3.4배까지 뛰었다. /연합뉴스

은행서 계좌 갈아타기 급물살 ... 계좌변경 200만건 돌파

76%가 3단계 시행후 이뤄져

은행에서 계좌를 갈아탈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가 시행된 후 계좌 변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계좌 변경 건수는 지난 10일까지 203만 건으로 집계돼 200만건을 넘어섰다.

전체 변경 건수의 76.4%가 3단계가 시행된 후 9영업일 만에 이뤄졌다. 지난달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55만건의 ‘갈아타기’가 발생했다.

2단계까지는 금융결제원의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계좌 변경률이 저조했다. 80영업일 간 48만4000건에 그쳤다. 3단계부터는 은행을 통

해 계좌를 조회·변경할 수 있게 돼 계좌 이동이 좀 더 쉬워졌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보다는 은행 창구에서 대부분의 변경이 이뤄졌다.

3단계 시행 후 은행창구에서 변경 신청이 전체의 약 90%에 달했다. 50세 이상 신청자도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조회 서비스는 3단계까지 257만 명이 이용했다. 2단계까지는 105만명이, 3단계 이후부터는 152만명이 이용했다. 3단계 시행 후부터는 시행 2일 차 영업일부터 변경은 일평균 16만건, 조회는 일평균 14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